

# 말레이에 K-푸드 한우 첫 수출 19억 인구 할랄시장 선도 기대

3년간 총 1875톤 수출 예상  
한우 산업 글로벌화 교두보  
이슬람권 국가 진출 물꼬

할랄(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증이 필요한 권역인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가 처음 수출됐다. 19억 할랄 시장에 K-푸드, 한우가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 현지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 1호 계약 체결을 기념하고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연방농업마케팅청, 농업수의검역청, 이슬람개발부, 국제통상산업부 등 정부 인사, 유통·외식업체 대표, 현지 언론사 등 총 백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우와 K-푸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시켜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과의 검역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3월 현지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킵(말레이시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할랄 한우 첫 수출 기념행사'를 마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한우 수출업체 유창열 한다운에프에스엘 대표(왼쪽 두번째)와 말레이시아 한우 수입업체 압둘 아시드 CEO, 연방농업마케팅청(FAMA)고위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아이슬람개발부)이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육 수출 1호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 약 6백 톤(소 약 2500 마리분)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랄 한우의 수출은 이번이 최초로, 19억 인구의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이슬람권 국가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고기가 운송·보관·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 철저

히 해나갈 예정이다. 최초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표시되는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지 소매점에서도 한우 수출 공동 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약(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해 수출 현지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60년 이상 활발히 교류해온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첫 수출이 가시화되는 자리에 현지 정부 인사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한우고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 국내 소부장社 기술개발에 860억 규모 민간투자 나서

CVC 등 37개 투자사가  
32개 中企·중견 뒷받침  
산업부, 3년간 812억 매칭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 37개 투자사가 국내 32개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망 기술개발에 860억원 규모의 자본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소부장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32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 860억원에 더해 향후 3년간 812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외에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성장 분야도 다수 포함돼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제조공정용 멤브레인 제조기술,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을 위한 고분자소재 등 기술자립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분야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 및 발사체용 합금소재 개발 등의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당 민간 투자금액이 2020년 11억9000만원에서 2023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6억8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원된 116개 소부장 기업의 경우 약 1860억원의 민간 투자에 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약 2870억원 등 총 47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지원된 116개 기업 중 45개 기업이 약 300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수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등 소부장 협력생태계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해양수산과학기술계 이력 핵심인재 1만명 양성

해수부, 생애 전주기 육성체계 구축

정부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래 해양수산과학기술계를 견인할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향후 10년간 미래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1만명을 양성하고 선진형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인력양성 지원기관을 5개 지정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은 국가 연구인력

의 1.3% 수준인 9000여 명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이는 세계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22년 말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초·중·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영재고·과학고 학생 대상 경진대회 등의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관련 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연구수당 등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점연계 인턴십,

대학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신설해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첨단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서 채용연계형 R&D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출연금에 비례한 청년의 무채용, 기술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수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채용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인재 양성 지원기관 지정으로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차상근 기자

## 정부, 대기업집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 예외 추진

고용부-공정거래처, 장애인 고용 ↑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제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판매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

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베누와 톨로링 브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 사장이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 텔레콤 본사에서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보

## 무보, 佛 이통사에 5520억 금융 지원

브이그 텔레콤 韓 통신기기 구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프랑스 이동통신사 브이그 텔레콤의 국내기업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3억8000유로(약 552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브이그텔레콤은 약 1500만명의 가입자수를 보유한 프랑스 3위 이동통신사로 무보가 지원하는 보증을 담보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 방코 산탄데르를 통해 통신기기 구매대금을 용자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베누와 톨로링 시장과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및 향후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는 중국 등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TIM사에 2억5000

만유로 규모의 통신기기 구매금융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 폴란드 최대 통신사 P4사에 1억유로 상당의 구매금융을 지원했다.

특히, 통신기기는 제조 공정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조달하는 부품 비중이 커 무보의 통신기기 구매금융 지원 행보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무보는 앞서 지난 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신용투자보험사 연맹' 봄 총회에 참석,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들의 참여한 경쟁구도가 두드러진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수출신용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공사의 수출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